

끝의 자리에 서서

신윤식

가만히 있어도
하루하루가 지워져간다.
그 نوم의 세월은
한 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끝의 자리로 끌고 간다.



아름다움과 향기를 품고
환한 햇살처럼 빛났던
순간들도 떠나가고
시든 잎 되어 떨어지는
서러운 눈물의 자리다.

밀려왔다 밀려가며
꺼져버릴 물거품만
덩그러니 남겨 놓은 채
말없이 사라져
가슴 아리게 하는 자리다.

끝의 자리에 서서
수익 한 벌 걸치고
관에 누운 나를 본다.

어둑한 별판에
진 그림자 하나 끌고 가는데
하늘이 빛 되어 내려와
가슴 가득 피로 물들고
끝의 자리는 시작이 되니
오늘 떠난다 해도
기뻐 할 수 있는 좋은 날이다.

MATHETES

제23권

37

2015년 9월 13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주일오전설교

비유로 말하는 자

골 20:45-49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 해서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반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고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 왔고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끌려갈 것임을 마음 깊이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복음을 아는 신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게 된 신자는 자연히 자신이 의도하는 인생에 뜻을 두지 않게 되고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설사 주어진 현실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게 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은 신자를 이러한 삶으로 끌어잡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먼저 우리를 철저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도 이해한다는 것도 내가 나를 판단하는 위선일 뿐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강한 회방꾼으로 존재하는 나를 보게 하심으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해체시킨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자기 이해조차도 교만이었다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 전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에서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을 섬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자로 스스로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됨을 범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여호와와 실제 살아 계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다른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겼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는 말씀의 깊은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섬김도 부정되며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앞이 밝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부정되고 새로운 앞이 자리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스라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47절)입니다.

남쪽의 숲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결국 유다를 불태우고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고 그 불로 인해 혈기 있는 모든 자, 즉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불을 지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유다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을 49절에서 **“내가 이르되 이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나라”** 고 말합니다.

“아하” 라고 말하는 것은 탄식의 소리인데 유다 사람들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비유로 말하는 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냉소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심판하

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인간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다면 기존에 안다고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부정당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듯 머리에 저장된 모든 내용이 삭제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지의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모든 삶이 그 분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 지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는 말씀 또한 심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

게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긍휼과 사랑만을 좇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을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을 뜨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존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거나 복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만 좇게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거나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사람들 중에 환경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선지자 취급을 받았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 자기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밀쳐내고 분노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설교를 이해한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복음을 안다'는 자기 인

정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비유로 말하는 자로 치부하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제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내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알아들겠지’ 라고 설교 했는데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설교해서 알아들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의 생각은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것 또한 저의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쪽의 숲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시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유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을 단지 비유로 치부하여 에스겔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비유로 치부하여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 대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불로 인해 태워져야 할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그 같은 불의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 놓으시고자 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남겨지고 은혜로 주장되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육신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보다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해체시켜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이야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일오후설교

(8.23일 설교 78강)

순종과 공경

엡 6:1-4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단지 신앙인으로서 좋은 부부 관계를 이루는 방법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본문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신앙인

의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이해할 내용이 아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한 교훈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자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곧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부부가 서로 다투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면서 신자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칭송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가정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은 신자가 좋은 가정 만드는 일에 집중하여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가정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일하셨어야 합니다. 사도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 사역과는 무관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정의 의미부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가정이 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엨 6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바울이 좋은 가정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고 부부 문제와 부모 자식의 문제에 대해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

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부모에 대한 순종에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 가지마’라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주 안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나 이 말에 주의 하지 않고 자녀의 순종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서는 옳은 행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순종이 단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차원이 아니고 유교가 말하는 효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와 도덕을 뛰어 넘은 다른 의미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주가 다스리는 세계를 뜻합니다. 주가 누구인가 하면 자신의 피 흘리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신 주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주의 세계에서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고 주를 높이고 찬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부모의 뜻이 높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됨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의 뜻이 더 높음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 아래 있는 것이 신자의 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 안에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의해 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뜻은 늘 육신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뜻으로는 주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안에 있게 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게 된 것도 주의 뜻에 의한 주의 이루심의 결과임을 알게 됨으로 주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주의 뜻에 눈이 열린 신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주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뜻대로 되는 것만이 불의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되는 길임을 믿게 됩니다. 때문에 주의 뜻을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의 뜻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뜻을 이뤄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의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육신을 이롭게 하는 내용으로 해

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3절에 대한 곡해입니다. 대개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말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으로 이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땅에서 잘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잘됨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고’라는 말을 육신이 잘되는 것으로 이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을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자에게 잘됨은 주 안에 있게 된 그 자체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 붙들려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모든 은총과 복아래 있게 된 것이 잘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여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김 받는 잘됨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되고’라는 말도 주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이미 성취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장수를 인간의 년 수로 생각하면 오래 살수록 장수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90살을 살면 장수했다고 하겠지만 100살을 산 사람 앞에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수는 단지 생존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생존 연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 안에서는 영광된 생명의 나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지금 현재 생존한 것 자체가 장수입니다. 몇 년

을 살고 있는지를 떠나서 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잘된 자고 장수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본문은 혈육의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신자는 서로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주 안에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피차의 복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 역시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야 할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교회라는 관계로 함께 할 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늘 주의 교훈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그 교훈이 우리를 훈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두가 자녀이고 부모입니다.

수요일설교

(9.9일 설교 67강)

르호봇

장 26:12-25

오늘 본문은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은 일과 하나님이 복을 주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일은 뭔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을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삭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의 행위를 놓고 본다면 복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난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앞날을 멋대로 상상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이삭에게는 복 받을 근거가 없음을 생각해 본

다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자’ 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부가 되었다면 예상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부만 된다면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부 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거부가 된 것으로 인해 시기를 받게 됩니다. 13-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고 말합니다. 거부가 됨으로 인해 그랄에서의 평화롭던 삶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삭이 자신들보다 백배나 많은 소득을 얻고 자기들 땅에서 거부가 된 것은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없을뿐더러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삭을 불러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고 말합니다. 결국 이삭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거부가 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

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또 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 이름을 에섹(다툼)이라고 합니다. 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대적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름을 르호봇(장막이 넓다)이라고 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 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삭이 그랄의 살던 곳에서 떠나 골짜기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거부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부되게 하신 것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것 때문에 우물을 파면서 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한 것은 그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도 이삭에게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시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역시 아브라함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골짜기에 거하게 되고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거하던 땅은 척박하여 우물을 판다고 해도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신다

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어디에 거하든 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이삭은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땅이 됨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의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단지 거부가 되게 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 복은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삶의 환경을 두고 복의 여부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의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자손이 번성케 하심으로 아브

라함이 약속에 참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손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삭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복입니다. 이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친 것입니다.

이삭이 살던 곳을 떠나 그 땅 골짜기로 왔을 때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장막을 쳤습니다. 자신의 생존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살던 곳에서 쫓겨나 골짜기까지 오게 된 것 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물과 다름을 통해서 자신의 장막이 넓다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 우물을 판 후에는 르호봇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점차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에게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복의 의미입니다. 거부가 되게 하신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케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재물과 상관없는 번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되는 번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높으신 그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으로 다가와지기 바랍니다.

칼럼

이단 147 - G12(지투엘브)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단 다음에는 이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꿈을 이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에는 지독한 인본주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에 열광한다.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든 아니든 인간의 꿈과 결단과 열심을 강조하는 말에 열광하는 모습이야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G12의 2015 컨퍼런스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을 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모든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최고의 기술과 탁월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곧 새로운 세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배우나 텔레비전 정치가나 음악인들이 나와서 TV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 과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 단연코 아니다. 다만 인간을 선동하기 위한 종교적 멘트일 뿐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현대 교회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단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들의 실상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이 아니라 G12는 알파운동, 빈야드운동, 신사도운동과 접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인다. 이처럼 알파운동, 빈야드운동, 신사도운동과 접목되어 나타나는 G12의 신비주의 특성은 세자르 복사의 자기 체험에 대해 말하는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의 “G12 비전으로 세계를 주님께” 라는 책 49쪽에서 그는 “나의 몸은 바닥에 쓰러

졌으나 나의 영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 순간에 나는 나를 호위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청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의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좁고 커다란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었다. 앞과 뒤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긴 터널 같은 곳에 내가 있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나 역시 그들을 쫓아 올라갔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 드리기 시작하자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으나 나는 기쁨으로 찬양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천사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23-24쪽에서는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께 이렇게 속삭였다..... 약 15분이 경과한 후에 내가 있던 그 방은 순식간에 찬란한 빛으로 밝아졌다. 그 느낌은 마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천지의 무대 위에 지극히 작은 내가 장대한 그 분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환상 가운데 사람의 손과 같은 형체가 내 곁으로 다가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쓰다듬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스한 손길이 닿은 곳마다 나의 죄악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체험을 했다” 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벗겨지는 체험을 했다는 것도 비성경적인 말일 뿐이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이러한 말에 열광하며 신비한 체험을 한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한다.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 지에는 관심 없고 무조건 체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러한 종교성을 등에 업고 이단이 성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꽃무릇)

오늘의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만족하지
아나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 5:10-1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82장**
교 독 문 **41(시97편)**
기 도 **이성의 장로**
찬 송 **585장**
성경봉독 **겔 20:45-49**
설 교 **신윤식 목사**
바유로 말하는 자 (45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198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4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조규현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89장**
기 도 **오정의 집사**
찬 송 **524장**
성경봉독 **엡 6:10-13**
특 송
설 교 **신윤식 목사**
새롭의 상대 (81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350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김옥자 집사

다음주일특송 : 김옥분 집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68강

은석소식

1.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늙고 병들고 늙어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현재의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잘 압니다. 우리의 자랑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재건교회 97회 총회가 21일(월) 19시에 마산재건교회당에서 개최 됩니다.
3. 김지원 학생을 부반주자로 임명합니다.